



국제 리뷰

-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UN Women 아태지역 사무소의
“SDG 기초선 연구”
김정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 제6차 성인지통계 국제 포럼과 성인지통계 국제 동향
전기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건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UN Women 아태지역 사무소의 “SDG 기초선 연구”

김정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최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관련 논의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로 이행하였다.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가 8개 목표와 21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반면, SDG는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와 세부목표 수로만 봐도 지속가능개발목표(SDG)가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1〉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목표 1. 빈곤 퇴치
- 목표 2. 기아 해소
- 목표 3. 보건
- 목표 4. 교육
- 목표 5. 성 평등,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
- 목표 6. 물과 위생
- 목표 7. 적절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 접근성
- 목표 8. 지속가능 성장, 생산적 고용과 관철은 일자리
- 목표 9. 회복 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 목표 10. 불평등 감소
- 목표 11. 통합적이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
-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 목표 14. 대양, 바다, 해양자원 보호 및 이용
- 목표 15. 육상 생태계, 산림관리, 사막화와 토지파괴, 생물다양성 보존
- 목표 16.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 목표 17. 지속가능발전의 실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개발목표(SDG)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목표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청하면서,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가 초점을 맞추었던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 사회안보, 환경지속성 등을 고루 포함시켜 주제적 측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논의의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김지현, 2014; Razavi, 2016). 그러나 지속가능개발목표(SDG)가 너무 많은 목표와 세부목표를 포괄하다 보니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과 더불어, 목표달성의 모니터링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유엔 차원에서는 회원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SDG 지표에 대한 유관기관·전문가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이하 IAEG-SDG)”을 통해 SDG 달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분야 논의를 주도해온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에서는 아시아 개발은행(ADB)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 하에서 양성평등 목표의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Knowledge and Evidence Creation: Baseline Publication on SDGs, Goal 5 and Gender Equality Indicators in Asia Pacific, 이하 “SDG 기초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의 “SDG 기초선 연구”와 관련된 UN Women 아태지역 사무소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개발(SDG) 목표와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가 다섯 번째 독립 목표로 수립되어 있으며, 그 외 16개 목표 중 10개 목표에 젠더이슈가 크로스커팅(cross-cutting) 되어있다. 두 번째 목표인 기아해소, 세 번째 목표인 보건, 네 번째 목표인 교육, 여섯 번째 목표인 물과 위생, 여덟 번째 목표인 지속가능 성장 및 생산적 고용과 관장을 일자리, 열 번째 목표인 불평등 감소, 열한 번째 목표인 통합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 열일곱 번째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의 실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하위목표로서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내 젠더

목표	젠더관련 하위목표
목표 1. 빈곤 퇴치	1.2. 남성, 여성, 아동 빈곤인구를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1.4. 토지, 재산, 생산자원, 금융서비스 등 남성과 여성의 접근권 보장
목표 2. 기아 해소	2.2. 소년, 임신과 수유기 여성, 노인의 영양 2.3. 농업생산, 소규모 식품생산과 수입, 자원과 금융서비스 접근권
목표 3. 보건	3.1. 모성사망

목표	젠더관련 하위목표
목표 4. 교육	4.2. 소년 소녀의 초/중등교육 4.4. 기술, 직업교육, 고등교육 접근권 4.5. 교육 및 직업훈련의 성 격차 철폐 4.6. 문해와 산수 교육 4.7. 지속가능발전/인권/성평등/비폭력/문화적 다양성 교육 4.a. 성 인지적 교육설비
목표 5. 성 평등,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	5.1.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 종식 5.2. 공공과 사적인 공간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 철폐 및 여성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종식 5.3 어린이에게 강요된 결혼이나 여성의 성기 절단 등 해로운 관습 근절 5.4.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을 가족의 책임 공유와 적절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분배하고 인정 5.5. 공공 및 사적인 영역의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단계에 여성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 보장 5.6. 보편적인 성/재생산 보건 접근권 및 재생산권을 ICPD 행동프로그램과 북경행동강령에 부합되도록 보장 5.a. 여성이 자산과 생산적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 보장 5.b.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여성과 남성에게 보편적인 ICT 접근권 실현 5.c. 모든 차원에서 성 평등 증진 위한 견조하고 집행가능하며 점검가능한 입법과 정책 추진
목표 6. 물과 위생	6.2. 위생에 대한 여성과 소녀의 요구에 특별한 주목
목표 8. 지속가능 성장, 생산적 고용과 관참은 일자리	8.5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관참은 일자리, 동일노동 동일 임금 8.8 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
목표 10. 불평등 감소	10. 2. 연령, 성별, 장애, 민족, 인종, 출신, 종교 혹은 경제 및 기타 지위와 상관없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참여를 보장 촉진 및 역량강화
목표 11. 통합적이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	11.7. 안전하고 통합적이며 공공의 공간 접근권을 여성과 어린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보장할 것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13.b. 여성, 청년, 지역사회 및 소외집단에 대한 초점을 포함한 저개발국가 및 개도국 도서관가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수립 및 관리 역량제고 매커니즘 촉진
목표 17. 지속가능발전의 실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8. 성별 분리된 데이터

이러한 SDG와 관련해 일부 시각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도 한다(Esplen, 2015: 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는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성차별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조혼, 할례 등의 내용과 함께,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과 대표성에 대한 동등한 기회, 평화 및 재건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생식보건 및 생식권에 대한 보편적인(universe) 권리를 확보한 것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 역시 큰 성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페미니즘적 시각에서는 이러한 성취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기도 한데, 지속가능개발목표(SDG)가 진일보한 면은 있으나 완전히 변혁적이지는 못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즉, 지속가능개발목표(SDG)가 그 이름 그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표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적 자유주의 경제성장 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존의 권력구조에 도전하고 있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혁적인 양성평등의 달성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양성평등이 자연히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 있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양성평등 관련 재원의 문제 역시 지속가능개발목표(SDG)가 내포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시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Esquivel, 2016).

상기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양성평등이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독립목표이자 10개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달성 없이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완전한 달성이 어려우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양성평등 노력을 진일보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에 소개될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의 “SDG 기초선 연구”는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달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의 “SDG 기초선 연구”

앞서도 언급된 것처럼,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는 ADB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2개년(2016-2017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SDG 기초선 연구(Knowledge and Evidence Creation: Baseline Publication on SDGs, Goal 5 and Gender Equality Indicators in Asia Pacific)”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양성평등 및 여성 관련 독자목표인 다섯 번째 목표 및 지표와 그 외의 목표 내의 여성 및 양성평등 관련 목표 및 지표를 맵핑하여, 다섯번째 독자목표 뿐만 아니라 다른 목표와 그에 따른 지표에 있어서도 젠더가 중요하며, 젠더관련 노력 없이는 SDG 목표들의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인식제고 및 Advocacy를 목표로 한다.

현재, 연구의 중간단계로서, 지난 11월, 현재까지 작성된 연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본원과 UN Women, ADB의 공동주최로 「Regional Consultation on the SDG Baseline Publication: Evidence-based Policy Advocacy for Gender Equality and Localisation of the SDGs in Asia and the Pacific」(이하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현지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SDG 기초선 연구”의 초안에 대한 피드백 및 기술적 자문을 받고, 국가 간 경험을 공유하고, SDG 관련 데이터의 생산자와 사용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표 3〉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 개요

- 회의명: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 (Regional Consultation on the SDG Baseline Publication: Evidence-based Policy Advocacy for Gender Equality and Localisation of the SDGs in Asia and the Pacific)
- 일시 및 장소: 2016년 11월 15일 ~ 11월 17일, 태국 방콕
-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아시아개발은행(ADB)
- 참가자: 아태지역 내 국가대표, UN 기구 및 기타 협력기관(AD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 및 기타 UN Women 지역사무소/국가사무소 참가자 95명

총 3일 간 11개 세션으로 구성된 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UN Women, 2016). 우선, 새로운 지속가능개발목표(SDG)는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의 진전에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조성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한다(leaving no one behind)’는 대 원칙 하에,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가 혁신적인 변화(transformative change)를 위한 한 요소라는 점이 공유되었다. 앞선 논의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한 성 차별이 기반하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과 권력관계도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내용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젠더적 측면에서 진일보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로, 양성평등의 달성은 그 자체로 우선순위 목표인 동시에, SDG의 모든 목표 달성을 위한 촉진환경(enabler)이자 전제조건(precondition)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SDG 여덟 번째 목표인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열번째 목표인 ‘불평등 감소(reducing inequalities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열여섯번째 목표인 ‘포용적이고 책무성있는 거버넌스 구축(inclusive and accountable governance)’ 등의 목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의 가사노동 및 경제 참여에 대한 평가절하,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 문제 등에 대한 해결 없이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아태지역 차원의 젠더지표를 검토할 때, 최근 동 지역에 주목 할만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혜택이 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특히, 여성이 그 혜택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 예로,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교육이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들의 교육수준 증가가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기회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넷째로, 여성들이 경제성장과 무역,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이 시사되었다. 유급 육아휴직 및 육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무보수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과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여성 기업가들에 대한 자본과 기술, 시장접근성 지원과, 법과 제도상의 차별 철폐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섯 번째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구축에 있어서 가장 만연해있는 장애요소라는 점이 공유되었다. 아태지역 내 80% 이상의 국가들이 관련 법제를 제정해오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정책의 문제임이 분명해지고 있으나, 관련법의 이행에 있어서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여섯 번째로, 생식보건과 관련된 권리의 문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 예로, 가족계획은 사적 영역에서 생식보건과 관련된 여성의 선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의 생산적 역할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역량강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결혼과 건강 상 해로운 풍습의 이행, 전통 및 풍습에 대한 잘못된 해석 등은 여성 및 여아의 생식보건 및 생식권에 있어서 큰 도전과제로서 인식되었다.

일곱 번째로, 여성의 리더십과 정치참여는 공적영역의 의사결정과 법률제정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철폐에 대한 아젠다 수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공유되었다. 여성 의석수의 비율은 아시아지역이 19%, 태평양 지역이 16%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과, 「여성,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이행에 관한 한 연구에서도 인도적 지원 및 평화재건에 있어서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내의 복잡하고 서로 교차하는 여러 젠더이슈와 관련된 증거기반 수집에 있어서 데이터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의 역할과, 불평등한 젠더관계의 체계적 변화와 변혁(transformation) 등이 강조되었다.

나가는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는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의 달성 없이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내의 양성평등 관련 독자목표 및 관련 목표/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UN Women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아시아 개발은행(ADB)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SDG 기초선 연구”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동 연구가 향후 아태지역 내 개도국의 젠더관련 지표 및 데이터 구축에 기여하고, 타 대륙의 벤치마크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설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지현 (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 개발과 이슈, (19), 1-35.

UN Women(2016). Summary Report: Key Results of the Regional Consultation on the SDG Baseline Publication—Evidence-based Policy Advocacy for Gender Equality and Localisation of the SDGs in Asia and the Pacific.(15-17 November 2015, Bangkok, Thailand).

Razavi, S. (2016). The 2030 Agenda: challenges of implementation to attain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Gender & Development*, 24(1), 25-41.

Esplen, E. (2015). Progress for women and girl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Observer*, (303), 14.

Esquivel, V. (2016). Power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feminist analysis. *Gender & Development*, 24(1), 9-23.

제6차 성인지통계 국제 포럼과 성인지통계 국제 동향

전 기 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건 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1. 도입

이 글에서는 제6차 성인지통계 국제 포럼을 통해 성인지통계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에서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성인지통계 국제 포럼은 유엔통계처(UN Statistics Division)가 회원국의 성인지통계 수집, 배포,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제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개최되는 성인지통계 국제회의이다. 그 동안 이탈리아 로마(2007년), 가나 아카라(2009년), 필리핀 마닐라(2010년), 요르단 사해(2012년), 멕시코 아파스칼리엔테스(2014년) 등에서 개최되었다(유엔통계청 홈페이지, 2016. 12.20). 성인지통계 국제 포럼은 유엔 회원국의 통계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 등 성인지통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경험과 성인지통계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중요한 장이다. 올해 11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6차 성인지 통계 국제 포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성인지통계의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에서의 과제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제6차 성인지통계 글로벌 포럼의 주요 내용

1) 개요

제6차 성인지통계 국제 포럼은 유엔통계처와 핀란드 통계청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2016년 11월 24일(월)부터 11월 26일(수)까지 헬싱키의 옛 의회 건물(House of the Estates)에서 개최됐다. 제6차 성인지통계 국제 포럼에는 핀란드 통계청장, 유엔통계처 인구사회통계국장, 핀란드 평등 이슈 대사, 전임 핀란드 대통령 등 국제기구, 유엔 회원국의 통계청,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에 소속한 발표자 등 100여명 이상이 참석하였다(유엔통계처, 2016. 12.20).

제6차 성인지통계 국제 포럼의 논의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속발전가능목표(SDGs) 후속 조치 및 이행 지표 체계와 관련된 자료와 통계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구체적으로 제6차 성인지통계 국제 포럼에서는 ①여성 경제 역량 강화(SDGs 1, 5, 8 관련 지표), ②여성에 대한 폭력(SDGs 5, 11, 16 관련 지표), ③시간 사용 통계와 무급 노동(SDG 5 관련 지표), ④여성의 정치 참여(SDG 5 관련 지표), ⑤여성 건강(SDG 3, 5)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유엔통계처, 2016. 12.20).

제6차 성인지통계 국제 포럼 안내 포스터 및 참석자 사진



자료: 유엔통계처 홈페이지(http://unstats.un.org/unsd/gender/Finland_Oct2016/Default.htm, 접속일: 2016. 12. 20)

제6차 성인지통계 국제 포럼 프로그램

2016. 11. 24(월)	
시간	내용
8:45-9:30	등록
9:30-10:00	개회식
10:00-11:00	고위급 패널: 젠더 관점에서 본 2030개발 의제의 후속 조치 및 검토: 도전과 기회
11:30-16:00	세션 1: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측정
16:30-18:00	세션 2: 국제 이민 여성 측정
18:30-19:30	리셉션
2016. 11. 25(화)	
9:00-11:00	세션 3: 여성에 대한 폭력(VAW) 측정
11:30-13:00	세션 4: 여성의 정치 참여 측정
13:00-14:30	중식
14:30-15:00	기조 연설: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
15:00-16:30	세션 5: 시간사용과 무급 노동의 측정 및 가치평가
17:00-18:00	세션 6: 성별 자료 생산을 위한 행정 자료 및 지리공간 정보 시스템 활용
2016. 11. 26(수)	
9:00-10:30	세션 7: SDGs: 성인지 지표 체계와 자료 상세화-모두 함께 가는 세상
11:00-13:00	세션 8: 최근의 성인지통계 관련 국제기구의 조치-성인지 자료 격차 해소
14:30-15:00	폐회식

자료: 유엔통계처 홈페이지(http://unstats.un.org/unsd/gender/Finland_Oct2016/Default.htm, 접속일: 2016. 12. 20)

2) 주요 발표 내용

가) 제19차 국제 노동통계전문가 회의에서 채택된 일 정의의 조직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 통계부의 선임 통계전문가인 키에란 월시는 ‘세션 1: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측정’에서 “제19차 국제 노동통계전문가 회의에서 채택된 일 정의의 조직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19차 국제 노동통계전문가 회의(ICL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ians)에서 새롭게 정의된 취업(employment)과 일의 개념과 향후 계획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취업 개념은 대가 또는 수익을 받고 타인을 위해 수행한 일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별 편차에도 불구하고 무급노동이 포함되었던 기존의 취업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새로운 일 개념은 ①가구에서 자신이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 ②타인이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생산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Kieran Walsh, 2016).

이러한 새로운 일 개념을 통해 가사노동, 육아 등과 같이 대부분 여성이 수행하는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일 개념의 적용을 통해 여성이 경험하는 이중 부담의 규모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Kieran Walsh, 2016).

국제노동기구는 2015년부터 10개 국가와 함께 제19차 국제 노동통계전문가 회의에서 채택한 새로운 일 개념을 적용한 시범 조사가 실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시범조사가 완료되면 각국의 노동력조사 조사표 설계와 관련된 지침과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Kieran Walsh, 2016).

나) 스위스의 성별 임금 격차 측정과 정치적 논쟁

스위스 연방통계청의 카트야 브랑제 박사는 ‘세션 1: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측정’에서 스위스의 성별 임금 격차 측정 사례와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한다. 스위스 연방통계청은 취업 부문(민간/공공), 업종, 근로시간, 연령, 직업, 학력, 숙련, 직위 등을 고려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조정된 성별임금격차’를 도출한다.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 분석에 있어서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여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 자료의 배포, 스위스 연방통계청의 개인 임금 계산 프로그램, 스위스 연방 양성평등부의 동일 임금 자가 테스트 도구 등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지원한다(Katja Branger, 2016).

다) MDGs 체계 준수를 위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통계적 측정 방법의 수정

세계보건기구(WHO) 생식건강연구부의 아브니 아민과 클라우디아 가르시아-모레노는 ‘세션 3: 여성에 대한 폭력(VAW) 측정’에서 “SDGs 체계 준수를 위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통계적 측정 방법의 수정”을 발표한다. 이 발표에서는 SDGs 목표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근절과 같이 SDGs에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목표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목표 달성 정도는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Avni Amin and

Claudia Garcia-Moreno, 2016).

구체적으로 중동, 서아프리카 등과 같은 많은 국가에서 이들 지표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시계열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여성 노인, 장애 여성 등과 같은 특정 인구 집단,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인신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 형태 등과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의 역량과 자원의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방법론의 다양성으로 인한 자료 비교의 어려움, 윤리와 안전을 고려한 신중한 자료 수집과 신중한 자료 해석 등의 어려움이 있다(Avni Amin and Claudia Garcia-Moreno, 2016).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방법론적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세계보건기구의 다국적 조사 설문지를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심리학적 폭력의 척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세 번째로는 여성 노인에 대한 폭력의 척도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추정 절차와 방법론을 강화할 예정이다(Avni Amin and Claudia Garcia-Moreno, 2016).

라) 유엔 최소 양성평등지표의 새로운 플랫폼

유엔 통계처의 하오이 첸은 ‘세션 8: 최근의 성인지통계 관련 국제기구의 조치-성인지 자료 격차 해소’에서 “유엔 최소 양성평등지표의 새로운 플랫폼”을 소개하였다. 최소 양성평등지표는 유엔통계처가 북경행동강령, 새천년개발목표(MDG) 등 유엔 회원국의 대표적인 양성평등 전략과 목표 이행 정도를 파악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11년에 걸쳐 글로벌 성인지통계지표 데이터베이스 자문 그룹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고, 2013년 유엔 통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Haoyi Chen, 2016).

유엔 최소 양성평등지표는 회원국 북경행동강령 등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양성평등 전략과 목표 이행 정도를 파악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에 따라 “경제 구조, 생산 활동 참여와 자원 접근”, “교육”, “건강과 관련 서비스”, “여성과 청소년, 여아의 인권”, “공직과 의사결정” 등 5개 영역의 총 52개 양적 지표와 11개의 질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유엔 최소 양성평등지표 홈페이지, 2016. 12.20).

유엔 최소 양성평등지표 홈페이지 화면(일부)



자료: 유엔 최소 양성평등지표 홈페이지(<https://genderstats.un.org/#/home>, 접속일: 2016. 12.20)

최소 양성평등지표의 체계: 양적 지표

영역	번호	지표명
경제 구조, 생산 활동 참여와 자원 접근	1	성별 평균무급가사노동시간
	2	성별 평균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시간(총노동시간)
	3a.	15-24세 인구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3b.	15세 이상 인구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4	성별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
	5	성별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6	성별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비율
	7	기업규모별 여성대표자 기업 비율
	8a.	성별 농업부문 취업자 비율
	8b.	성별 산업부문 취업자 비율
	8c.	성별 서비스부문 취업자 비율
	9	성별 비농업부문 취업자 중 비공식 취업자 비율
	10	15-24세 청년층의 성별 실업률
	11	성별 신용거래 인구 비율
	12	성별 토지소유 인구 비율
	13	성별 임금격차
	14	성별 시간제 취업자 비율
	15	3세 이하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25-49세 남녀의 고용률
	16	3세 이하 아동 가운데 공식 돌봄을 받는 아동의 비율
	17	성별 인터넷 사용자 비율
	18	성별 이동통신 사용자 비율
교육	19	가구주 성별 대중매체(라디오, 티브이, 인터넷) 접근 가구 비율
	20	성별 15-24세 청년 인구의 문해률
	21	성별 초등학교 순입학률
	22	성별 중등학교 총입학률
	23	성별 고등교육기관 총입학률
	24a.	초등교육 총입학률의 성별 격차
	24b.	중등학교 총입학률의 성별 격차
	24c.	고등교육기관 총입학률의 성별 격차
	25	과학, 공학, 제조, 건설분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여성 비율
	26	고등교육기관 교수 중 여성 비율
	27	성별 초등학교 1학년 순취학률
	28	성별 초등교육 이수율
	29	성별 중학교 총졸업률
	30	성별 초등-중등학교 이행률
	31a.	25세 이상 남녀인구 중 초등학교 학력 인구
	31b.	25세 이상 남녀인구 중 중학교 학력 인구
	31c.	25세 이상 남녀인구 중 고등학교 학력 인구
	31d.	25세 이상 남녀인구 중 후기-중등교육기관 학력 인구
	31e.	25세 이상 남녀인구 중 고등교육 학력 인구

영역	번호	지표명
건강과 관련 서비스	32	15-49세 결혼, 동거 중인 여성의 피임실천율
	33	성별 5세 이하 사망률
	34	모성사망비
	35a.	출산 전 진료율(최소 1회 이상 방문)
	35b.	출산 전 진료율(최소 4회 이상 방문)
	36	숙련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출산 비율
	37	성별 15세 이상 흡연인구비율
	38	성별비만인구비율
	39	15-49세 HIV/AIDS인구 중 여성비율
	40	성별 항레트로바이러스약품 접근 가능 인구
	41	성별 60세의 기대수명
	42a.	15-34세 성인의 사인별 사망률
	42b.	35-59세 성인의 사인별 사망률
여성 청소년, 여아의 인권	48	15-49세 기혼여성 중 지난12개월 사이 현재 또는 이전파트너에 의한 물리적 폭력/ 성폭력피해자 비율
	49	15-49세 기혼여성 중 15세 이후 파트너가 아닌 사람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비율
	50	여성성기절제발생건수(해당국가)
	51	20-24세 여성 중 18세 이전 결혼·동거상태였던 여성의 비율
	52	10대 출산율
공직과	43	여성장관비율
	의사결정	여성의원비율
	45	여성관리자비율
	46	여성경찰관비율
	47	여성판사비율

자료: 유엔 최소 양성평등지표 홈페이지(<https://genderstats.un.org/#/home>, 접속일: 2016. 12. 20)

3. 향후 과제

위에서는 제6차 성인지통계 국제 포럼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6차 성인지통계 국제 포럼의 내용이 한국에서 갖는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국제적 개념과 기준 적용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은 일,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성인지통계 생산에 필요한 중요한 개념과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제기구의 새로운 개념과 기준을 한국에 적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제기구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성별 임금 격차 등 한국 양성평등 정책 현안과 관련된 국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별 임금 격차 완화는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다.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위에서 검토한 스위스 사례와 같이 성별 임금 격차를 초래한 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생산 국제 양성평등지표의 생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엔의 SDGs 추진, 최소 양성평등 지표 구축 등에 따라 새로운 국제 양성평등지표의 생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유엔의 최소 양성평등 지표 가운데 “성별 신용거래 인구 비율”, “성별 토지소유 인구 비율”, “3세 이하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25-49세 남녀의 고용률” 등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따라서 이들 지표 생산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 여부, 지표 생산 기준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생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 · 고 · 문 · 헌

- Avni Amin and, Claudia Garcia-Moreno(2016). "Adjusting statistical methods to measure VAW to comply with the SDGs framework", 6th Global Forum on Gender Statistics(Helsinki, Finland , 24-26 October 2016) 발표문.
- Haoyi Chen(2016), "The new platform for the Minimum Set of Gender Indicators", 6th Global Forum on Gender Statistics(Helsinki, Finland , 24-26 October 2016) 발표문.
- Katja Branger(2016), "GPG measures and the political debate in Switzerland", 6th Global Forum on Gender Statistics(Helsinki, Finland , 24-26 October 2016) 발표문.
- Kieran Walsh(2016). "Guidelines to operationalize the definition of work adopted at the 19th ICLS", 6th Global Forum on Gender Statistics(Helsinki, Finland , 24-26 October 2016) 발표문.

유엔통계처 홈페이지(http://unstats.un.org/unsd/gender/Finland_Oct2016/Default.htm, 접속일: 2016. 12. 20)

유엔 최소 양성평등지표 홈페이지(<https://genderstats.un.org/#/home>, 접속일: 2016. 12. 20)